

이준수 ‘이용대 대회’ 새 스타 탄생

화순-빅터 배드민턴선수권 성황리 폐막

고교 1학년끼리 결승...서승재 잡고 男단식 제패
여자단식 이민지, 청송여고에 창단 첫 우승 안겨
화순-빅터대회, 셔틀콕 유망주 발굴 산실로 우뚝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사가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한국 셔틀콕의 새로운 젖줄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화순고의 여고부 단체전 준우승을 이끌었던 고아라(21)-유해원(21)은 나란히 화순군청에 입단한 뒤 국가대표팀에 서도 복식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세계랭킹 18위까지 성장했다. 국제무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상 중인 복식조로, 이 대회에 낳은 한국배드민턴의 새로운 미래다.

올해 대회에서도 뜨거운 열기 속에 새로운 유망주들이 대거 탄생했다. 이용대, 이효정, 정재성 등을 세계적 선수로 키워낸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문가가 “가장 눈에 띄는 유망주”로 평가한 서승재(군산동고)는 지난해 금강중 3학년으로 이 대회 중등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했다. 고교 1학년이 돼 참가한 올해 대회에서도 2~3학년 형들을 연이어 제치고 고등부 남자단식 결승에 올랐다.

서승재의 결승전 상대 이준수(매원고)도 이 대회와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다. 이준수는 하안중 3학년이던 지난해에도 이 대회 중등부 남자단식 패권을 놓고 서승재와 다툰 바 있다. 김 전무는 “전국대회에서 고교 1학년끼리 결승에서 맞붙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28일 전남 화순 하나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서승재와 이준수의 고등부 남자단식 결승을 유심히 지켜봤다.

결과는 이준수의 세트스코어 2-0(21-19 21-12) 승리. 서승재가 큰 키에 왼손잡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 이준수는 빠른 발을 활용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다. 둘은 중학교 시절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동반 성장하고 있다.

고등부 여자단식 정상에 오르며 청송여고에 창단 13년 만의 전국대회 첫 우승을 안긴 이민지도 강한 승부근성과 끈기로 눈길을 끌었다. 결승에서 화순고 전주이를 상대로 1세트를 21-10으로 따낸 이민지는 2세트에선 듀스 접전 끝에 24-26으로 패했지만 3세트에서 다시 24-22로 역전승하며 우승했다.

고등부 여자단식과 여자복식에서 모두 4강에 오른 제주여고 한소연은 2008베이징올림픽과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효정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꼽힌다. 현역 시절 전영오픈에서 우승한 세계적 선수였고,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시간 이효정을 지도했던 정병희 화순군청 감독은 “(한소연은) 큰 키에 경기운영 스타일까지 이효정과 꼭 빼닮았다. 체격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 대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고등부 남자복식에선 진광고 박세웅-김정호, 혼합복식에선 고경보(부산동고)-채유정(성일여고)이 각각 우승했다. 여자복식에선 성지여고 김혜린-이선민이 정상에 올랐다.

화순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매원과 이준수(위)가 28일 전남 화순 하나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고등부 남자단식 결승에서 군산동고 서승재를 상대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화순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 구충곤 전남배드민턴협회장

“화순은 배드민턴 유망주의 요람”

초·중·고·실업팀 연계...체계적 육성시스템 갖춰

전남 화순은 2010년부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한국배드민턴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28일 올해 대회가 폐막했지만, 29일부터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등 유망주 140명이 이곳에 모여 강경진 주니어대표팀 감독과 함께 20일간 훈련한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 선수들을 ‘제2의 이용대’와 ‘제2의 이효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및 체력 훈련이 진행된다.

전남배드민턴협회는 4년간 이 대회를 주관하면서 유망주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럭비선수 출신인 전남도립대학교 구충곤 총장은 전남배드민턴협회장을 맡아 셔틀콕 꿈나무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구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잘 후원하고 있다. 우리(전남) 협회의 역할은 좋은 꿈나무를 계속 배출하고 기원 국가대표팀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순은 날씨도 좋고, 물과 공기가 깨끗한 고장이다. 운동선수에게 좋은 온천도 두 곳이나 있다. 이용대체육관, 하나울문화스포츠센터 등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도 갖췄기 때문에 전남배드민턴의 중심지라 같다. 더욱 열심히 지원해 꿈나무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화순은 인구 7만명의 작은 고장이지만, 초·중·고부터 실업팀까지 연계된 덕분에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구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볼 모델이 이용대 선수였다. 이용대 선수가 세계적 선수로 성장한 이곳에서 많은 꿈나무들이 같은 꿈을 키우고 있다.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좋은 지도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 | 이경호 기자



구충곤 전남배드민턴협회장은 2010년부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뒷바라지하며 한국배드민턴의 유망주들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화순 | 박화용 기자

■ 경기결과 <28일>

●남자 고등부 단식 결승전=이준수(매원고) 2-0 서승재(군산동고)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전=이민지(청송여고) 2-1 전주이(화순고)
●남자 중등부 단식 결승전=이종성(진광중) 2-0 조진아(원주중)
●여자 중등부 단식 결승전=변수인(청산중) 2-0 정효진(청산중)
●남자 고등부 복식 결승전=박세웅-김정호(진광고) 2-1 임지수-박정호(진광고)
●여자 고등부 복식 결승전=이선민-김혜린(성지여고) 2-0 이민지-윤민아(청송여고)
●남자 중등부 복식 결승전=김원호-강민혁(수원원일중) 2-0 이종성-이종찬(진광중)
●여자 중등부 복식 결승전=김기은-백승혜(범서중) 2-0 김예지-김지우(전주성심여중)
●고등부 혼합 복식 결승전=고경보(부산동고)-채유정(성일여고) 2-0 이요셉(밀양고)-이선민(성지여고)
●중등부 혼합 복식 결승전=박찬익(육현중)-김가은(범서중) 2-1 백성열(김천중앙중)-이소원(김천여중)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암도 두려울것 없는(癌) 해조의 과학! 「후코이단」



이정식 지음

(본문 중에서)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가버섯, 산삼, 상황버섯, 프로 폴리스 등은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키지만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작용하지 못한다. 반면 후코이단은 면역기능 뿐만 아니라 아포토시스(Apoptosis 세포의 자살) 유도작용으로 일반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 세포만을 자살로 유도하는 기전과 **암세포의 혈관생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암과 맞서는 환우들을 위한 지침서이며 암 진단후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감, 암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며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소멸케 하는 능력**과 후코이단을 통해 질병을 극복한 증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후코이단 연구논문의 주요내용 (본문 중에서)

암세포의 자살유도

암세포생성 혈관억제

뇌종양노성 신장질환예방

정부 국책사업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후코이단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지 가공 시설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완도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민 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상담전화: 080-050-0088

출판기념으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100명/택배비 본인부담)

자동 조절 기능

자동 성기능 강화용 링

특허 제10-1183268

국내최초·발명특허
완전자동조절

반지만 착용하면 알아서 척척
더~꺾고 더~세게 더~강하게
수술 NO~ 약물 NO~ 힐링맨으로 OK!

스포츠 서울 건강부분 1위 선정

2013 특별기회 고객감동 & POWER KOREA

ASO-KOREA
2013년 10월 10일

한국관광공사
2013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013년 10월 10일

7일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자동조절되는 힐링맨을 착용시
강한남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상담전화 010-6620-1348]

완전자동 힐링맨은 3~5mm 자동장치와 3단계 조절
장치로 타 유사제품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결된 국내
최초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각지역 판매지사 모집합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특별사은품증정

NAVER 힐링맨 검색 http://www.hman.kr

*14일 사용 후 효과있을시 100%환불보장

대표 전화 1899-2134 010-6220-1348 010-3215-9711

제조원 : 파워맨코리아 농협 302-0852-2580-21 이명숙

이벤트 참여방법

01. 문자메시지에 궁금하신 내용 입력 후,
02. #4545-1899-2134번으로 문자 1통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게 힐링맨
을 선물로 드립니다.

> 휴대폰으로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문자가 바로 날아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보기